

농촌환경 보전에 관심가질 때

농약빈병 수집에 아낌없는 협조를...

요즘 우리 농촌풍경을 생 각하면 칠팔월의 뜨거운 피약별밑 들녘에서 농약을 살포 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정도 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급증, 과학기술의 발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오염물질의 다량 배출과 그 적절한 처리가 되지않아 자연생태계의 기능이 점차 파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오염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져 어렸을 적 마음의 고향 이던 우리네 깨끗한 농촌의 강과 산을 오염시켜 그 깨끗하던 맑은

물을 구경하기가 어렵게 되어가 고 있다. 무엇이 그토록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었을까?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이제는 도시와 맞먹는 문화생활을 누리 고 있지만, 반면에 농촌의 쓰레 기도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각종 폐비닐류, 라면봉 지, 음료수병, 깡통류, 연탄재 등..... 이 가운데에서도 농약 살포후 남는 농약빈병은 농촌에 서 버려진 것 중에서 가장 골치 덩어리라 할 수 있다.

농작물을 가해하는 병해충의 종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3, 300 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주요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충으로 알려진 것만도 평균 173종, 해충 79종등 252종이나 된다고 한다. 농업생 산을 위해서 농약은 필수불가결 한 물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김 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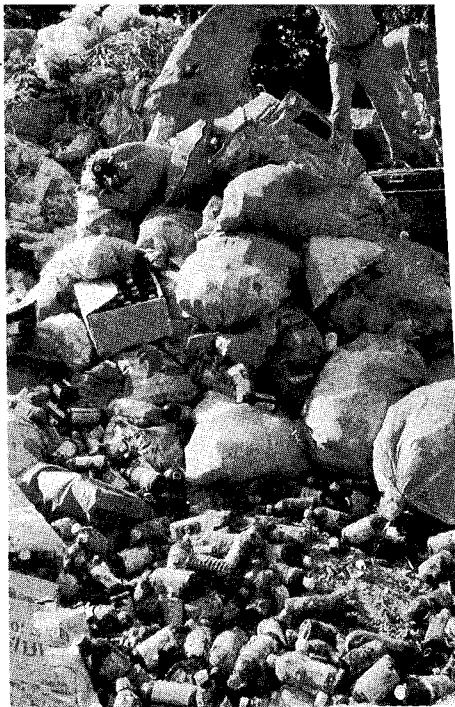
한국자원재생공사
홍보실장

없게 되었지만 농약사용후 2차적
위해를 걱정하지 않는 바는 아
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
우, 각종 병해충과 잡초로 수확
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농촌일
손이 절대부족한 오늘의 현실에
서 농약없이 농사를 지을수가
없게 된 것이다.

농약빈병 왜 수거해야 하나?

농약을 살포하고 난 뒤에 적
정처리가 되지 않아 아무 곳이나
함부로 방치되어 나뒹구는 농약
빈병은 논길을 마음놓고 밟고
다닐 수 없게 만들고, 강이나
냇가에 버려졌을 때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버려진 잔류농약 때
문에 토양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인축의 피해도 우려된다. 농약
빈병의 공해는 점차로 극심해져
농촌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과
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농약빈병의 수집은 지난 80년
부터 단위농협을 통하여 일부
실시되었지만 무상수집, 홍보미
흡, 주민 참여의식 부족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경
제기획원을 주축으로 대책회의
를 열어 국고 30%, 농협 10%,



농약공업협회 30%, 자치단체 30
%의 비율로 보조금이 책정되어
전국적인 수집망과 인력·장비
를 갖추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
사에서 수거할 것을 결정, 1987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거하여 처
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그동
안 전국 60개 관리소에서 2.5톤
차량 200대로 전국방방곡곡을
정기순회 하면서 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페비닐 수거를 해오던
중 '87년부터 농약빈병을 병행



하여 수집하고 있다. 농촌주민들이 모아온 농약빈병은 kg당 90원(개당30원)씩의 보상금을 주고 수집하고 있으며 89년 8월부터는 농약 PET빈병을 kg당 900원(1개당 . 30원)씩의 보상금을 주고 수집을 실시해 농촌주민들의 수거의욕을 고취시켜 왔다.

수집요령은 시·군·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체수거 및 경진대회계획을 수립,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및 고지대 등 농경 취약지를 집중수거하고, 수거기간 중 지역단위로 집중수거일을 지정유도하여 수거물량을 읍·면·동·마을회관 수집장에 집결보관하면 재생공사 차량이 지역정기순회일에 유상수집, 인수한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농업협동조합 및 부녀회 등 유관단체, 자생단체, 각급학교를 참여시켜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을 수집해온 이래 '87년 3,400

만개, '88년 3,700만개, '89년 4,000만개를 수집하여 점차적으로 수집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약빈병 발생의 전량수집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재생활용되는 농약빈병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것들 중에 다시 활용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 못쓰게 된 종이 1톤을 회수함으로써 나무 20본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집된 농약빈병은 유리병제조회사로 보내져 분쇄, 가렛트(유리 제조용 원료)로 재생활용 되고 있다.

수거의 필요성과 재활용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자원재생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폐기되는 것들의 90% 이상을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농약빈병은 농민 스스로의 협조와 관심으로 전량수집 되었을 경우, 이것이 재활용되어 새

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물론 현재 농촌일손의 부족으로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집노력과 농촌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 준다면 지금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보전과 자원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우리농촌 깨끗한 삶의 터전되게

우리의 농촌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그리고 보전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가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약사용후 농약빈병을 제때에 수거해야 하는 필요성도 바로 이 점에 있다.

농약빈병을 각 마을단위로 한 곳에 모아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거차량이 수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 부녀회, 청년회, 심지어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수거활동도 대단하

려니와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그 보상금으로 마을기금을 조성, 유용하게 사용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다행히 최근들어 환경분야에 정부나 국민의 관심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분야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자연환경보전과 폐기물의 재자원화라는 설립목적으로 지난 '80년부터 10년동안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해오다 '87년부터 농약빈병 수거를 수행해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요망되는 것이 이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민을 계몽해야 함은 물론 더이상 농촌환경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농약빈병등에 대한 수거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홍보와 계몽이다.

우리의 농촌은 「식량생산의 본거지」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진일보하여 깨끗한 삶의 터전으로 남도록 인식되게 하자.